

# 2만 불자 운집 결연한 환경수호 천명

## '6·26' 범불교도 대회 개최 의미와 전망

2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는 조계종 뿐 아니라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주요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이날 최대 규모인 2만여 불자가 동참, 정부의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환경수호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의 환경법어, 둔정현 신부의 연대사, 북한산 살리기 운반 봉정식, '고은 시인의 환경시 낭송, 대정부 국회 촉구문, 북한산 환경수호대 발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위원장 성다, 이하 공동위)가 6·26 범불교도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4월 18일 건교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밝힌 △북한산 관련 고소 고발 취하 △우회노선 검토위 구성 △LNG건설 직원에 의한 비구니스님 폭행 사과 및 관련자 문책 등 불교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3월 16일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6·26 범불교도 대회는 6월달 이후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공사가 강행되려 하자 추진됐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자연보전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대회'.

## 국민적 관심 환기, 정부에 대안노선 촉구 해결 안될때 실력행사 등 강경한 대응책

'자연과 수행환경 수호'라는 유시까지 발표될 음에도 사찰수행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가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천성산과 금정산 고속철도 건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등 불교계 환경현안들이 한 건

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여기에 서울고속도로(주)가 12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불자들의 공분은 더욱 거세졌다. 따라서 이번 범불교도 대회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정부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동시에 불교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계사 대회장에서 종묘까지 시위도 갖는 등 강력한 대정부 규탄에 나선다.

불교계는 26일 대회 개최를 계기로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기간 동안 수그러들었던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해 대안노선을 검토할 노선검토위 구성과 공사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불교계는 또 불자 청년들로 구성된 수호대 등 비상조직을 가동해 북한산 살리기 수행진도량을 보호하고,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유보시켜, 새 정권에서 관동도로 건설을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 현운스님은 "6월 30일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교계가 결연한 의지로 북한산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1천 6백년 한국불교가 뿌리부터 흔들릴 지도 모른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선종사에 새로운 이정표

한·중·일 무차선대회 어느 고승 참석하나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스님)가 오는 10월 20일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는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 선양과 참사람의 인간성 회복으로 세계평화 및 남북평화통일 성취' 주제의 무차선(無遮禪) 대법회는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참사람 무차선대법회'를 계승한 세 번째 국제 무차선 대법회다.

이번 대법회는 중국이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선종교의 전통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지나치게 형식주의로 흐른 가운데, 선종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 선종교를 세계

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차회'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si-parisad'라 하며 승려 및 남녀노소의 차별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공양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 의식. 이번 대법회에는 진제(眞際) 스님을 비롯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용(西翁) 스님,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입제종 묘심사파 대보리사 관장 종현(宗玄) 스님이 등단해 선문답을 펼친다.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스님은 문화



◇서용스님



◇진제스님



◇정혜스님

한= 서용·진제, 중= 정혜, 일= 종현 스님

## 3국 선지식 한 법단 등단 선문답 펼쳐

에 알리고 그 전통을 바로 이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이 선종의 적통을 잇고 있는 화두선의 중주국임을 세계에 과시하는 의미도 깔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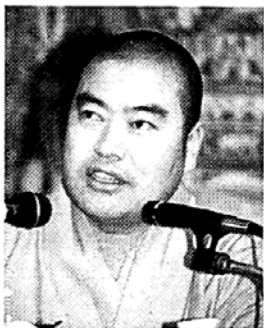
특히 이번 국제 무차선 대법회는 한, 중, 일 등 3국의 선지식들이 처음으로 한 법단에 등단해 법거랑을 펼칠 예정이어서, 선종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타케토 밀교나 일본 선종교에 의해 가려져 있는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 국제포교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은 행사 취지문에서 "크스님들의 법문이 있으신 후에 대중 누구나 원하는 이가 나와서 크스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법거랑)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인간의 참된 삶과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의 많

다해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통을 계승한 고승,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이란 기치 아래 1991년부터 매년 생활선대회를 열고 있다. 중국 선종의 부흥에 심혈을 기울여 귀운암(歸雲庵)에 일체의 출입을 통제 한 무문관(無門關)을 설립, 중국 선종의 흥흥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일본 입제종 대보리사 관장 종현 스님은 72년 묘흥사(妙興寺) 무위실(無位室) 종의(宗義) 노사의 전법제자가 되었다. 84년 대보리사 주지에 이어, 95년 입제종 본사인 묘심사(妙心寺) 화원선속(花園禪窟)의 숙두(蘇頭)로 취임해 입제선종을 드날렸다. 이번 국제 무차선회 참석은 입제종 묘심사파의 공식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

김재경 기자



## "신도전문교육 내실·활성화 최선"

불교대학 대표자협의회 초대회장 정인 스님

## 저변확대 위해 인가조건 완화 건의 교육기관령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요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 높아진만큼 신도 저변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한 신도 전문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린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 협의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된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포교원과 43개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은 물론 비인가 불교교양대학과의 교량역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도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스님은 불교(교양)대학이 조계종 소속

과 그밖의 종단 및 단체 소속으로 각각 나눠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 "비인가 불교 교양대학이 다양한 포교여건과 재정난, 또는 자율성 등의 문제로 종단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여건이 미비하더라도 가능한 불교대학의 저변확대가 이뤄지도록 인가조건 완화 등을 종단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스님은 조계종 소속 이외의 불교교양 대학과도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해, 불교

전체의 포교 인프라 구축을 도모해야 신도 교육의 본래 취지가 살아난다며, 종단과 비인가 불교교양대학들간의 유기적 협력관계에도 관심을

인생술 바꾸는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일지만 강력한 마교스런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선무(禪武)는 심신(心身)을 하나로 묶어 정신이 건전하고 신체 강건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남이 스승님으로부터 금강승선관무를 전수 받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수많은 세월동안 염원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염원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으로 인가 되었고, 원주시 남덕 미륵산 남쪽 자락에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도장을 마련하여 '개원식' 및 '선관무정기수련' '하계특별수련회'를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개원식 및수련안내에 참석하시어 커다란 격려와 함께 조출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이사장 이원욱 합장

중앙수련원 개원식

▷ 일시 : 2002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원주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원

###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영 단계, 직장단계,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 단체인 등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 참가회비  
■ 개인 : 1개월 50만원 ■ 단체 (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제유법 및 참선	15시	선·관·무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지덕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관·무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점심공양(발우)		

- 개강일 ■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외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접수처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03-4779

###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 일정 및 내용

기간 (3박 4일)	내 용
1차 7월 25일(목요일) ~ 7월 28일(일요일)	禪·觀·武 수련, 묵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화요일) ~ 8월 2일(금요일)	
3차 8월 6일(화요일) ~ 8월 9일(금요일)	
4차 8월 13일(화요일) ~ 8월 16일(금요일)	
5차 8월 20일(화요일) ~ 8월 23일(금요일)	

※ 초·중·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준비물 ■ 밀기우,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도복(별도)
- 장소 ■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 신청방법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03-4779
-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 수련회비 : 6만원(1인)
- 입금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찾아오시는 길 ▶

강원도 원주시 귀래동 용암리 (구)용암초등학교 우 220-652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03-1 거양 B/D 4층 우 137-840

#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